



# 췌랜딤티 효과라뇨?

오재호/한국부부문화 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내** 가 이 남자 때문에 오죽하면 신경성 위장병까지 걸리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이혼하겠어요!”

50대 여성의 이혼사유입니다. 실제로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건강을 해쳤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런 현상은 ‘췌랜딤티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바라던 것 대신에 엉뚱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결혼생활 속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원래 ‘췌랜딤’이란 서양 사람들이 상상 속의 신비의 섬을 두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곳에 가면 참으로 알 수 없는 경이로운 현상이 날마다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아그라는 심장 약을 개발하던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험투약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환자의 성기가 발기하는 부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신비의 비아그라가 탄생할 수 있었던 ‘췌랜딤티 효과’입니다. 인터넷도 소립자 실험의 데이터 교환 도중에 갑자기 나타난 ‘췌랜딤티 효과’로 탄생된 것입니다.

문제는 ‘췌랜딤티 효과’가 늘 좋은 방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온갖 사치와 풍요를 누린 사람입니다. 닭고기를 먹는 데도 누군가 씹어서 목구멍에 넣어주어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내 굶어죽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엉뚱한 결과를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엉뚱한 결과는 얼마든지 연출됩니다. 남편의 술과 담배 때문에 그것을 한사코 말리던 부인이 신경성 위장병에 걸리는 경우도 ‘췌랜

딤티 효과’ 현상입니다. 아내의 춤바람 때문에 고민하던 남편이 어느날 아침에 자살로 세상을 끝내는 사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아들 녀석의 대학입시를 위해 함께 밤을 세우던 어머니가 드디어는 우울증세를 나타내는 경우도 ‘췌랜딤티 효과’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의 장본인은 기대와 책임입니다. 그런데 기대란 대개 자신의 가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항상 옳은 것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편협된 결정들입니다. 게다가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더 책임을 묻는 습성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배우자가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주길 바라는 정서적 이동현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더 무서운 것은 나의 남편(아내)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의지현상도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혼법정에 나타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췌랜딤티 효과’ 현상을 상대 배우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췌랜딤티 효과’는 나의 기대와 책임 때문이란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배우자로 하여금 이혼법정에 서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은 참으로 오묘하다고 이야기 하나 봅니다.

